

## ❖ 『교환』 - 이 소비에트 도시인이 살아가는 법을 보라!

### I. 작가 소개

- 역자 해설에 나와 있는 부분을 참고.

### II. 작품 간략 해제

#### 1. 시작 ( ~ 15쪽, 3/4)

- 어머니의 병. 시어머니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그녀의 아파트(좋은 곳에 위치한 좋은 아파트)와 현재 드미트리예프의 아파트를 합쳐 방 두 개짜리 넓고 팬찮은 아파트로 옮기려는 레나의 계획. 어쩔 수 없는 드미트리예프의 동의.

#### 2. 실행 준비와 착수 (15쪽 3/4 - 18쪽 2/3 ~ 43쪽 1/3)

- 다음날 아침. 사위에 대한 ‘장모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회를 가지도록 하며, 레나의 채근으로 아파트를 맞바꾸러 올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프로프사유즈나야 거리의 어머니의 아파트 열쇠를 받아오도록, 다차에 가 계시는 시어머니께 억지로 가는 드미트리예프.  
; 당시 모스크바 「석유가스 연구소(기네가)」의 분위기, 사내 연애에서 불륜으로 발전하기도 했던 타나라는 여인(“아내로서 더 나은 여인이었는지 모른다”)의 도움과 이해. 연줄(связь), 소개, 뇌물(взятка) 등이 반(半)공식적으로 작용하던 소비에트 사회에 대한 감춤없는 드러냄.

#### 3. 파블리노보의 다차로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드미트리예프, 그 길에서의 일련의 회상들 ( 43쪽 처음 ~ 78쪽 거의 마지막)

1) 아버지 - 게오르기 알렉세예비치. 붉은 빨치산 부락에 오늘날까지의 다차가 되는 집을 처음 세움. 도로공사 기술자였지만 유머러스한 단편을 늘 메모하던 분. 형제들의 삶(혁명 직후, 코카서스로, 극동으로, ... )

2) 어머니 - 크세니야 표도로브나. 큰 도서관의 수석사서. 선의로 예전의 알고 지내던 사람들을 돕는 유형. 이것에 대한 레나의 비난(위선) vs 드미트리예프와의 갈등. 그러나, 여동생 로라와 어머니는 점차 자신들에게서 멀어지는 아들을 느낌. “루키야노프형 인간이 되었구나!”(49쪽).

3) 장인 - 이반 바실리예비치 루키야노프. 파블리노보의 다차에 차려진 신혼집을 방문해 당장 하수도부터 엄청난 수완으로 바꿔놓음. “힘 있는 사람”. 소비에트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할지, 터득한 사람. 조심, 의심.

4) 새댁, 며느리 - 레나 루키야노바-드미트리예바. 역시 친교의 달인. 드미트리예프에겐 매력. 탁월한 영어실력(인텔리직 자질...?). 그러나 경솔하면서도 상대에 대한 배려, 이해, 깊은 사고는, 루키야노프 가문 답게 없음. (드미트리예프의 아버지 초상화를 옮겨 건 사건; 58-60쪽).

5) 장모 - 베라 라자레브나. ‘믿음’(베라, Вера)이라는 이름과는 참 틀리게, 믿음 별루 없고 경솔하고 쓸데없는 알량한 자존심만 살아있는 경우. 초상화 사건이 있다 행하니 떠나버림(61쪽).

6) 드미트리예프의 할아버지 - 효도르 니콜라예비치. 혁명 이전 페테르부르크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혁명가들과 직접 교류한 기념비적 인물. 모스크바로 돌아와 1년만에 남서구(당시 권력, 지식인층을 위한 고급주택지구)에 아파트를 배정받음. 레나의 겁 없는 조롱: “당신은 괴물이에요! 당신은 아주 잘 보존된 괴물(монстр)이에요!” ; 세대간의 차이. 시대의 차이.

7) 내키지 않았던 피크닉 - 혁명 이전 / 혁명 주도 / 전후 ‘해빙’ 등을 거친 신세대의 차이가 그대로 노출(63-65쪽).

8) 할아버지의 사망 - 정서적으로 떨어져 나가는 드미트리예프(“결식구”, 69쪽 “어떤 끈”), 무례한 사돈댁.

9) 료프카 부브릭 - 드미트리예프에게 외가로 6촌쯤 되는 인물인데, 이 인물의 취업알선(?)을 막상 떠맡고 나선 것은 사실상 남이라고 할 수 있는 이반 바실리예비치 루키야노프.

10) 레나의 알파맘적인 기질 - 딸의 영어특수 학교 입학, 자신의 ‘신의 직장’(IMKOIN) 취업. 남편 드미트리예프의 박사 만들기 플랜. 물론 놓지 않는다, ... (전후 50년대 초반, 소비에트의 분위기 물어 나옴)

11) 결별 - 시어머니와 시월드를 경멸하기 시작하던 레나는 결국 소시민 근성과 걸치레, 허영 등의 논쟁에서 최후통첩을 선언, 결별(78쪽 한가운데).

#### 4. 절정 - 회상 등등 이후, 로라 그리고 어머니와의 드미트리예프의 대화 (78쪽 거의 맨 아래 ~ 89쪽 거의 맨 아래)

1) 여동생 로라 - 중앙아시아 탐사를 1년의 절반쯤 남편 펠릭스와 함께 나감. 처음부터 아파트 맞교환이 레나의 음모임을 간파. 체념, ...

2) 어머니 크세니야 표도로브나 - 어릴 적 아들이 그린 그림 언급, 아파트 맞교환에 대해 어렵사리 입을 뻔. “너는 이미 바꾸었다, 비짜야. 이미 맞바꿨어. ... 벌써 오래 전의 일이야. 그리고 언제나, 매일처럼 떨어져, 그러니 놀라거나 화내지 말거라 애야. 그냥 그렇게 우리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 아파트의 맞교환이 아니라, 삶의 의미, 기준, 가치관 등을 드미트리예프는 이미 맞바꿨던 것이다. 거절!

3) 개 벨다, 트롤리버스에서 새끼를 뺏 세퍼드를 내리게 하는 드미트리예프.

#### 5. 결과 - 아파트 맞교환에 어머니가 동의, 성사. 어머니 사망, 아들도 몸도 정신도 앓음. 서술자, ... ^^

### III. 생각해 볼 문제

#### 1. 인물군으로 보는 시대와 가치의 변화, 대립

| 드미트리예프 가문의 사람들  | 루키야노프 가문의 사람들                |
|---|------------------------------|
| “살아온 방법”에 매달린 사람들. 혁명 이전, 또는 혁명기의 삶에서 사실상 정신적으로 벗어나지 못했음. | “사는 방법”, 전후 소비에트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 |
| 드미트리예프는 이 둘 사이에서 방황했다가, 이젠 포기하고 과도기로 넘어가려는 인물인 듯          |                              |
|   |                              |

2. `60년대 후반, 소비에트 도시민, 모스크바 시민의 삶의 ‘적나라’한 공개 (아파트 교환, 삶의 ‘실제적’ 규칙과 방법, 사내 연애와 불륜,
3.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란 소비에트 창작 원칙에서 이완
4. 소비에트 제국의 당시 정치, 사회적 상황에 대한 자유롭고 가감없는 설명
5. ‘철의 장막’ 건너편에선 트리포노프의 이른바 이러한 “모스크바 이야기”를 통해 소비에트의 도시의 일상적인 삶에 대한 스케치를 시도
6. 아파트라는 물질적인 욕망의 공간이 시대와 세대의 차이, 또는 대립, 변화를 대변하는 상징적 공간으로 제시.
7. 소비에트 보통 시민, 도시인의 삶이 이렇게 고단해도 괜찮을 정도인가?
8. `50년대 “해빙”이라는 사회적 이완의 분위기 속에 문학을 비롯한 예술 전반에 있어서의 소비에트 성찰의 관점과 태도가 발견.
9. 기존의 소비에트 예술에 대한 이분법적 경직된 접근법 개선이 필요.
10. 교환(обмен)은 기만(обман)인가, ...